

2026
중3-1
천재(노)

2026 중3-1 국어 천재(노) | 4(1) 문제 해결하며 읽기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지문의 내용에 관해 묻는 문제, 읽기 과정에 대한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지문의 내용에 대한 숙지, 문제 해결하며 읽기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요소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신대륙의 숨은 보물, 고추 이야기

중세 유럽의 향신료 탐험은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밟은 땅을 인도라고 착각한 콜럼버스는 후추를 찾지 못했지만 대신 감자와 고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후추보다 더 좋은 향신료’라고 고추를 평했습니다.

이후 콜럼버스가 유럽으로 전한 고추는, 16세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을 거쳐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고추는 한 세기 만에 전 세계로 전해졌고,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추는 신대륙과 함께 발견한 또 다른 보물이었던 셈입니다.

(나) 현재 세계 곳곳에서 고추의 매운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추장을 즐겨 먹듯 고추의 원산지인 멕시코를 중심으로 타바스코, 칠리소스 등 매운 소스가 발전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음식에 곁들이는 양념이 발달해 인도네시아의 삼발, 태국의 남프릭 등 매운 소스가 개발되었습니다.

(다) 고추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료이지만,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지는 40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추가 국내로 들어오게 된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임진왜란 즈음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는 설이 일반적입니다.

중남미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고추는 포르투갈 무역선에 실려 1540년대 마카오와 중국 무역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543년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 규슈까지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추는 일본을 거쳐

지금의 부산인 동래 왜관을 통해 들어와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즈음에 이미 고추 재배가 경상도 일대로 퍼져 나간 것입니다. 재배가 어렵지 않은 덕분에 그 뒤 고추는 남에서 북으로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라)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는 고추 맛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김치가 원래부터 매웠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물이 많은 절인 채소’라는 의미의 ‘침채’가 김치의 어원인데, 여기에 고추를 넣어 담그게 된 것은 1700년경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마늘이나 산초, 생강, 파 등을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로 사용하고,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발효하여 먹었습니다.

(마) 1614년 이수광이 편찬한 《지봉유설》에서는 일본에서 전래되었다 해서 고추를 ‘왜개(일본에서 들어온 겨자)’라고 불렀으며,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왜초’라고 일컬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추를 일본인이 조선인을 독살할 목적으로 가져온 독초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해 오다 향신료 가격이 오르면서 점차 고추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18세기 들어 김치나 젓갈의 맛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 고추가 사용되면서 비로소 매운맛의 재료로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 뒤 고추를 고초라고 불렀는데 이는 후추같이 매운맛을 내는 식물이라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1. (가)~(마)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콜럼버스는 인도에서 고추와 감자를 발견하였다.
- ② 우리나라에 들어온 고추는 북에서 남으로 확산되었다.
- ③ 고추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많은 인기를 얻었다.
- ④ 고추는 독성이 강한 식물이란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⑤ 유럽으로 전해진 고추는 상인들에 의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퍼져 나갔다.

**2. (가)~(마)를 읽는 과정에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고추의 발견과 전파’라는 과제를 하기 위해 과제와 관련된 부분만 글에서 선별해서 정리했어.
- ② 고추와 관련된 글쓴이의 생각이 타당하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색해 봤어.
- ③ 조선 시대에 고추를 사용한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봤어.
- ④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고추와 서양의 고추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봤어.
- ⑤ ‘향신료’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 봤어.

3. 글을 읽기 전 ㉠에서 떠올린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대륙 탐험이 시작된 계기는 무엇일까?
- ② 고추를 재배하기에 적절한 기후는 무엇일까?
- ③ 고추를 “신대륙의 숨은 보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
- ④ 신대륙 발견과 함께 발견된 작물에는 어떤 것이 있지?
- ⑤ 신대륙에서 고추를 발견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느림보 나무늘보의 역발상 생존법
 나무늘보가 얼마나 느린지 비교해 보자. 사람은 분당 100여 미터를 걸어가고, 우사인 볼트는 100미터를 9초대에 주파한다. 치타가 최고 속도에 이르렀을 때의 속도를 계산해 보면 초당 29미터에 이른다. 반면 나무늘보는 나무 위에서 시간당 900미터를 움직일 수 있다. 1분에 15미터를 가는 셈이다. 하지만 그것도 땅에서의 이동 속도와 비교하면 그나마 빠른 편이다. 땅에서의 최고 속도는 고작 분당 4미터로, 1초에 7센티미터도 가지 못한다. 이쯤되면 포유류 중 최고의 느림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스로 몸을 방어할 이렇다 할 신체적 무기도 없다. 나무에 매달리기 좋게 발톱이 갈고리처럼 구부러져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나무늘보는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나) 코알라는 식물에서 수분을 섭취할 뿐, 따로 물을 마시는 일이 거의 없다. 또한 주로 나무에 매달려 살고, 나무늘보보다 더 게을러서 하루 20시간을 자며, 나머지 시간에는 끊임없이 먹는다. 먹고 자는 것 말고는 잘하는 것도 없고 자신을 방어할 무기도 없다. 그런데 코알라 역시 멸종되지 않고 잘 살고 있다.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공통점은 험한 환경과 천적들의 틈바구니에서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신체 조건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멸종되지 않은 비결은 무엇일까?

(다) 나무늘보는 야행성이며 나무의 잎, 새싹, 열매 등을 먹고 산다. 나무늘보가 주로 먹는 나뭇잎은 영양이 별로 없고 소화도 잘 안 돼서 다른 동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나무늘보가 나무 위에서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것도 천천히 소화하기 위해서다.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느릿느릿 움직인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존하게끔 진화한 것이다.

(라) 나무늘보와 코알라는 천적들과 격리된 서식 환경(나무 위)에 살면서 다른 동물들과 먹이 경쟁을 벌일 필요도 없다. 그렇기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힘없고 느린 동물도 경쟁자가 없는 환경에 적응하는 진화 전략으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경영학에도 이런 개념이 있다. 바로 ‘블루 오션(blue ocean) 전략’이다.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가 레드 오션(red ocean)이라면 블루 오션은 먼 대양(大洋)이다. 레드 오션에서는 수많은 어종이 생존의 이진투구를 벌이는 반면, 블루 오션은 그럴 필요가 없다.

(마) 레드 오션이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의미하고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이라면, 블루 오션은 현존하지 않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시장이다. 느려 터진 나무늘보나 코알라가 지상의 연하고 맛있는 풀을 놓고 다른 동물들과 경쟁을 벌였다면 살아남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무 위에서 맛없고 질긴 풀을 주식으로 삼았기에 다른 종들과 먹이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었다. 나무늘보와 코알라야말로 진짜 블루 오션 전략의 창시자들이 아닐까 싶다.

4. <보기>의 배경지식을 수정하여 (가)~(마)를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한 것은?

<보기>

나무늘보는 게올러서 평소에 굉장히 느리게 움직인다.

- ① 나무늘보가 나무 위에서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것은 나무늘보의 게으른 성격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
- ② 나무늘보는 게올러서가 아니라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느리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 ③ 나무늘보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어.
- ④ 다른 동물들과 달리 나무늘보는 먹는 외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 ⑤ 나무늘보는 사람과 달리 야행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5. (마)를 읽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기>의 문제를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2개)

<보기>

나무늘보와 코알라가 진짜 블루 오션 전략의 창시자라고 한 글쓴이의 생각은 타당할까?

- ①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신체 조건이 생존에 유리함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생각은 타당한 것 같아.
- ②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움직이는 속도가 생존에 유리함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생각은 타당한 것 같아.
- ③ 나무늘보와 코알라가 우연히 천적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게 된 것을 글쓴이가 오해하여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 다른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 ④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먹이나 서식 환경이 생존에 불리함을 블루 오션 전략과 관련지어 설명했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생각은 타당한 것 같아.
- ⑤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먹이나 서식 환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블루 오션 전략과 관련지어 설명했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생각은 타당하지 않아.

신유형

문제 해결하며 읽기의 개념과 효과, 글쓴이의 의도, 독자의 사고 과정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해결하며 읽기에 대한 학습, 지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 등을 파악하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 문제 해결하며 읽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을 읽으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읽기라는 의미이다.
- ② 글과 관련된 독자의 배경지식은 글의 의미 파악과 별 관련이 없다.
- ③ 글을 읽을 때는 비판적으로 읽기보다 공감적 읽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 ④ 읽기 속도 향상을 위해 의미 파악이 힘든 부분은 건너뛰고 일단 읽는다.
- ⑤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고력과 능동적 읽기 태도를 기를 수 있다.

【7~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중세 유럽의 향신료 탐험은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밟은 땅을 인도라고 착각한 콜럼버스는 후추를 찾지 못했지만 대신 감자와 고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후추보다 더 좋은 향신료’라고 고추를 평했습니다. 이후 콜럼버스가 유럽으로 전한 고추는, 16세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을 거쳐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고추는 한 세기 만에 전 세계로 전해졌고,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추는 신대륙과 함께 발견한 또 다른 보물이었던 셈입니다.

(나) 현재 세계 곳곳에서 고추의 매운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추장을 즐겨 먹듯 고추의 원산지인 멕시코를 중심으로 타바스코, 칠리소스 등 매운 소스가 발전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음식에 곁들이는 양념이 발달해 인도네시아의 삼발, 태국의 남프릭 등 매운 소스가 개발되었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매운 품종의 고추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특히 아삼 지역에서는 엄청난 매운맛을 자랑하는 부트졸로키아 고추가 재배되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콤한’ 고추, 파프리카는 부드러운 고추의 변종으로 미국의 열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터키를 대표하는 향신료인 파프리카는 오스만 제국 당시에 헝가리로 전파되었습니다. 파프리카는 단맛부터 매운맛까지 다양한데, 이 중 순한 맛의 파프리카 가루는 헝가리를 대표하는 향신료가 되었습니다. 헝가리식 쇠고기 스투 ‘굴라시’는 파프리카를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렇게 고추는 매운맛, 순한 맛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다) 고추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료이지만,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지는 40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추가 국내로 들어오게 된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임진왜란 즈음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는 설이 일반적입니다. 중남미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고추는 포르투갈 무역선에 실려 1540년대 마카오와 중국 무역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543년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 규슈까지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추는 일본을 거쳐 지금의 부산인 동래 왜관을 통해 들어와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즈음에 이미 고추 재배가 경상도 일대로 퍼져 나간 것입니다. 재배가 어렵지 않은 덕분에 그 뒤 고추는 남에서 북으로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라)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는 고추 맛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김치가 원래부터 매웠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물이 많은 절인 채소’라는 의미의 ‘침채’가 김치의 어원인데, 여기에 고추를 넣어 담그게 된 것은 1700년경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마늘이나 산초, 생강, 파 등을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로 사용하고,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발효하여 먹었습니다.

(마) 1614년 이수광이 편찬한 《지봉유설》에서는 일본에서 전래되었다 해서 고추를 ‘왜개(일본에서 들어온 겨자)’라고 불렀으며,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왜초’라고 일컬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추를 일본인이 조선인을 독살할 목적으로 가져온 독초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해 오다 향신료 가

격이 오르면서 점차 고추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18세기 들어 김치나 젓갈의 맛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 고추가 사용되면서 비로소 매운맛의 재료로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 뒤 고추를 고초라고 불렀는데 이는 후추같이 매운맛을 내는 식물이라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추의 매운맛이 서민들 밥상에 정착하게 된 것은 19세기 초반이었습니다. 한국 요리가 맵다는 고정 관념도 실제로는 2백 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 고추는 단순한 양념에서 더 나아가 고유한 민속주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고추감주라 하여 고춧가루를 탄 감주는 감기를 낮게 하는 약으로 먹는 민속주입니다. 또 고추는 민속 약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신경통, 동상, 이질, 담 등의 민간요법에 쓰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질 등 세균이 침입해 염증을 일으키는 소화기 질환에 비교적 강한 반면,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이질에 매우 약한 것을 보면 고추는 확실히 소화 기관을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고추는 많은 매력을 지닌 채소로, 우리 민족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찰떡궁합인 향신료입니다. 보건 복지부의 조사(200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하루 고추 소비량이 7.2그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명실상부한 매운맛 대국입니다. 이제 고추의 알싸한 매운맛은 세계인들이 자꾸 찾는 맛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7.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콜럼버스는 신대륙에서 고추를 발견하였다.
- ② ‘침채, 왜초, 고초’ 등은 고추를 이르던 말이다.
- ③ 한국 음식에는 고추가 고려 때부터 사용되었다.
- ④ ‘굴라시’에는 매운 맛의 파프리카 가루가 사용된다.
- ⑤ 포르투갈 상인이 우리나라에 고추를 직접 전해 주었다.

8.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추는 한 세기만에 전 세계로 전해졌다.
- ② 김치는 고추 맛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음식이다.
- ③ 고추는 우리나라에서 민간요법에 쓰이기도 하였다.
- ④ 파프리카는 터키에 뿌리를 두고, 헝가리로 전파되었다.
- ⑤ 동남아에서는 삼발, 남프릭 등의 매운 소스가 개발되었다.

9. <보기>는 이 글을 읽은 독자의 사고 과정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갑: 글의 제목을 보니 여러 가지 음식의 역사를 다루고 있을 것 같아.
 을: 나는 읽기 전에 향신료 탐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읽다 보니 예측한 내용이 맞았어.
 병: '왜관'의 뜻이 뭔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 봤어.

- ① 갑: 책의 제목을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다.
- ② 을: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며 읽었다.
- ③ 병: 모르는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 ④ 갑, 을, 병: 모두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글을 이해하고 있다.
- ⑤ 갑, 을, 병: 모두 읽기 중에 해당하는 사고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10. 이 글을 <보기>와 같이 읽었을 때, 공통으로 활용된 것은?

<보기>

갑: '파프리카'가 요리 재료인 것은 알았는데, 고춧가루처럼 양념으로도 사용하는지는 몰랐어.
 을: 우리나라에 매운 음식이 많아서 고추가 토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들어온 지 400년밖에 안 되었구나.

- ① 작가 정보 ② 글의 주제 ③ 배경지식
- ④ 설명 방법 ⑤ 읽기 목적

11. <보기>는 이 글을 읽은 독자의 사고 과정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 특정 문장의 의미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앞부분을 다시 읽어 보니 이해가 되었어.
 을: '음식의 역사'를 조사하는 과제에 맞게 글을 다시 읽으면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보았어.

- ① 갑: 읽기 중 단계에 해당하는 사고 과정이다.
- ② 갑: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고 있다.
- ③ 을: 읽기 후 단계에 해당하는 사고 과정이다.
- ④ 을: 읽기 목적에 맞게 읽기 과정을 조정하고 있다.
- ⑤ 갑, 을: 모두 글을 능동적으로 읽는 과정에 해당한다.

12. 이 글을 <보기>와 같이 읽었을 때,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보기>

[Ⓐ]은/는 무엇일까?
 글의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신대륙에서 발견한 고추가 전 세계로 퍼졌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랑받게 되었다는 것 같아.

위 사고 과정은 [Ⓐ]이/가 직접 드러나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이를 글의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을/를 추론하여 해결하였다.

- ① 글의 제재 ② 글의 갈래 ③ 글의 성격
 ④ 중심 생각 ⑤ 글의 특징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 유럽의 향신료 탐험은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밟은 땅을 인도라고 착각한 콜럼버스는 후추를 찾지 못했지만 대신 감자와 고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후추보다 더 좋은 향신료’라고 고추를 평했습니다.

이후 콜럼버스가 유럽으로 전한 고추는, 16세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을 거쳐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고추는 한 세기 만에 전 세계로 전해졌고,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추는 신대륙과 함께 발견한 또 다른 보물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추

현재 세계 곳곳에서 고추의 매운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추장을 즐겨 먹듯 고추의 원산지인 멕시코를 중심으로 타바스코, 칠리소스 등 매운 소스가 발전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음식에 곁들이는 양념이 발달해 인도네시아의 삼발, 태국의 남프릭 등 매운 소스가 개발되었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매운 품종의 고추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특히 아삼 지역에서는 엄청난 매운맛을 자랑하는 부트졸로키아 고추가 재배되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콤한’ 고추, 파프리카는 부드러운 고추의 변종으로 미국의 열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터키를 대표하는 향신료인 파프리카는 오스만 제국 당시에 헝가리로 전파되었습니다. 파프리카는 단맛부터 매운맛까지 다양한데, 이 중 순한 맛의 파프리카 가루는 헝가리를 대표하는 향신료가 되었습니다. 헝가리식 쇠고기 스투 ‘굴라시’는 파프리카를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렇게 고추는 매운맛, 순한 맛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고추의 한국 입성

고추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료이지만,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지는 40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추가 국내로 들어오게 된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임진왜란 즈음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는 설이 일반적입니다.

중남미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고추는 포르투갈 무역선에 실려 1540년대 마카오와 중국 무역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543년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 규슈까지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추는 일본을 거쳐 지금의 부산인 동래 왜관을 통해 들어와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즈음에 이미 고추 재배가 경상도 일대로 퍼져 나간 것입니다. 재배가 어렵지 않은 덕분에 그 뒤 고추는 남에서 북으로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는 고추 맛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김치가 원래부터 매웠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물이 많은 절인 채소’라는 의미의 ‘침채’가 김치의 어원인데, 여기에 고추를 넣어 담그게 된 것은 1700년경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마늘이나 산초, 생강, 파 등을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로 사용하고,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발효하여 먹었습니다.

1614년 이수광이 편찬한 《지봉유설》에서는 일본에서 전래되었다 해서 고추를 ‘왜개(일본에서 들어온 겨자)’라고 불렀으며,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왜초’라고 일컬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추를 일본인이 조선인을 독살할 목적으로 가져온 독초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해 오다 향신료 가격이 오르면서 점차 고추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18세기 들어 김치나 젓갈의 맛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 고추가 사용되면서 비로소 매운맛의 재료로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 뒤 고추를 고초라고 불렀는데 이는 후추같이 매운맛을

내는 식물이라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추의 매운맛이 서민들 밥상에 정착하게 된 것은 19세기 초반이었습니다. 한국 요리가 맵다는 고정 관념도 실제로는 2백 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추는 단순한 양념에서 더 나아가 고유한 민속주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고추감주라 하여 고춧가루를 탄 감주는 감기를 낮게 하는 약으로 먹는 민속주입니다. 또 고추는 민속 약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신경통, 동상, 이질, 담 등의 민간요법에 쓰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질 등 세균이 침입해 염증을 일으키는 소화기 질환에 비교적 강한 반면,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이질에 매우 약한 것을 보면 고추는 확실히 소화 기관을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고추는 많은 매력을 지닌 채소로, 우리 민족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찰떡궁합인 향신료입니다. 보건 복지부의 조사(200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하루 고추 소비량이 7.2그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명실상부한 매운맛 대국입니다. 이제 고추의 알싸한 매운맛은 세계인들이 자꾸 찾는 맛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1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프리카가 고춧가루처럼 향신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 ② 1600년대 당시 한국인들은 고추가 몸에 해롭다고 생각했다.
- ③ 콜럼버스의 향신료 탐험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 ④ 고추가 들어오기 전에는 한국에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가 없었다.
- ⑤ 마늘, 생강 등 향신료 가격의 상승으로 김치에 고추를 넣기 시작했다.

14. <보기>는 학생들이 윗글을 읽기 전 떠올린 생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 1: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향신료를 찾으려고 탐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학생 2: 고추를 “신대륙의 숨은 보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

- ① 학생 1은 책을 통해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하고 있어.
- ② 학생 1은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어.
- ③ 학생 1은 책의 내용이 읽기의 목적에 맞는지 확인하고 있어.
- ④ 학생 2는 글의 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어.
- ⑤ 학생 2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어.

15. <보기>는 학생이 윗글을 읽으면서 겪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은 자료이다. 학생이 겪은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한국은 매운맛을 사랑한다. 연간 1인당 고추 소비량이 4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XX신문>, 20XX년 1월 25일 자

- ① 한국인들이 매운맛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② 한국 음식 중 고추를 활용한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 ③ 고추가 우리 민족과 찰떡궁합인 향신료라는 글쓴이의 주장은 타당할까?
- ④ 고추의 매운맛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글쓴이의 생각은 타당할까?
- ⑤ 김치가 고추 맛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음식이라는 글쓴이의 주장은 타당할까?

16. 윗글을 읽고 <읽기 목적>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였다. <학습 과제>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기 목적>

‘고추의 역사’를 조사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습 과제>

고추의 역사

1. 고추의 발견과 전파
 -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고추를 발견한 뒤 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퍼짐. ㉠
2. 고추의 한국 입성
 - 임진왜란 즈음 일본으로부터 들어옴. ㉡
 - 국물이 많은 절인 채소라는 의미의 침채가 김치의 어원임. ㉢
 - 한국 요리가 맵다는 고정 관념도 실제로는 2백 년 남짓밖에 되지 않음. ㉣
3. 고추의 대중화
 - 고추의 알싸한 매운맛은 세계인들이 자꾸 찾는 맛이 되고 있음. ㉤

- ① ㉠ ② ㉡ ③ ㉢ ④ ㉣ ⑤ ㉤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느림보 나무늘보의 역발상 생존법 • 블루 오션 전략 • 포유류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최고 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가 넘는다는 치타다. 하지만 치타는 우사인 볼트처럼 단거리의 명수이지, 장거리나 마라톤 선수는 아니다. 워낙 빠르기에 200~300미터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한계다. 치타에 쫓기는 어린 영양이 몇 초만 잡히지 않고 달아나면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유류 가운데 가장 느린 동물은? 느림보의 대명사인 거북이는 파충류이지 포유류가 아니다. 답은,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열대 우림에 서식하는 나무늘보다. 나무늘보는 하루 종일 나무 위에서 꼼짝도 않으며, 18시간을 잔다. 나무늘보는 영어로 ‘sloth’인데 이 단어는 본래 ‘나태’, ‘게으름’을 뜻한다.

나무늘보가 얼마나 느린지 비교해 보자. 사람은

분당 100여 미터를 걸어가고, 우사인 볼트는 100미터를 9초대에 주파한다. 치타가 최고 속도에 이르렀을 때의 속도를 계산해 보면 초당 29미터에 이른다. 반면 나무늘보는 나무 위에서 시간당 900미터를 움직일 수 있다. 1분에 15미터를 가는 셈이다. 하지만 그것도 땅에서의 이동 속도와 비교하면 그나마 빠른 편이다. 땅에서의 최고 속도는 고작 분당 4미터로, 1초에 7센티미터도 가지 못한다. 이쯤되면 포유류 중 최고의 느림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스로의 몸을 방어할 이렇다 할 신체적 무기도 없다. 나무에 매달리기 좋게 발톱이 갈고리처럼 구부러져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나무늘보는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호주에는 아주 귀여운 얼굴을 한 유대류 동물인 코알라가 있다. 코알라(koala)는 호주 원주민의 말로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뜻의 ‘굴라(gula)’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코알라는 식물에서 수분을 섭취할 뿐, 따로 물을 마시는 일이 거의 없다. 또한 주로 나무에 매달려 살고, 나무늘보보다 더 게을러서 하루 20시간을 자며, 나머지 시간에는 끊임없이 먹는다. 먹고 자는 것 말고는 잘하는 것도 없고 자신을 방어할 무기도 없다. 그런데 코알라 역시 멸종되지 않고 잘 살고 있다.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공통점은 험한 환경과 천적들의 틈바구니에서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신체 조건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멸종되지 않은 비결은 무엇일까?

나무늘보는 야행성이며 나무의 잎, 새싹, 열매 등을 먹고 산다. 나무늘보가 주로 먹는 나뭇잎은 영양이 별로 없고 소화도 잘 안 돼서 다른 동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나무늘보가 나무 위에서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것도 천천히 소화하기 위해서다.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느릿느릿 움직인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존하게끔 진화한 것이다.

코알라도 마찬가지다. 야행성이고 나무 위에서 생활하며, 주된 먹이는 유칼립투스잎이다. 나무늘보처럼 영양가도 별로 없는 유칼립투스잎만 먹고 하루 20시간을 자는 생활을 한다. 유칼립투스잎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코알라 외에는 먹는 동물이 없다. 그러니 잠을 자면서 장시간 소화하는 식으로 적응한 것이다.

나무늘보와 코알라는 천적들과 격리된 서식 환경

(나무 위)에 살면서 다른 동물들과 먹이 경쟁을 벌일 필요도 없다. 그렇기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힘없고 느린 동물도 경쟁자가 없는 환경에 적응하는 진화 전략으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경영학에도 이런 개념이 있다. 바로 ‘블루 오션(blue ocean) 전략’이다.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가 레드 오션(red ocean)이라면 블루 오션은 먼 대양(大洋)이다. 레드 오션에서는 수많은 어종이 생존의 이진투구를 벌이는 반면, 블루 오션은 그럴 필요가 없다.

레드 오션이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의미하고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이라면, 블루 오션은 현존하지 않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시장이다. 느려 터진 나무늘보나 코알라가 지상의 연하고 맛있는 풀을 놓고 다른 동물들과 경쟁을 벌였다면 살아남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무 위에서 맛없고 질긴 풀을 주식으로 삼았기에 다른 종들과 먹이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었다. 나무늘보와 코알라야말로 진짜 블루 오션 전략의 창시자들이 아닐까 싶다.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무늘보와 코알라는 생존에 불리한 방식으로 진화했다.
- ②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서식 환경은 레드 오션에 해당한다.
- ③ 나무늘보는 코알라에 비해 좋은 신체 조건으로 인해 멸종되지 않았다.
- ④ 코알라는 하루에 20시간을 자며, 먹이 경쟁이 치열한 유칼립투스잎을 즐겨 먹는다.
- ⑤ 나무늘보는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느리게 움직인다.

18. 윗글을 참고할 때 블루 오션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생존의 이진투구
- ② 치열하게 먹이 경쟁
- ③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
- ④ 나무 위에 맛없고 질긴 풀
- ⑤ 신체 조건이 좋지 않아 살아남기 어려움

19.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여 글을 읽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내용을 예측하며 읽는다.
- ②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며 읽는다.
- ③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 ④ 글에 나타난 정보를 자신의 배경지식과 관련하여 읽는다.
- ⑤ 글에 제시된 주장은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읽는다.

20. 윗글을 읽는 과정에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 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포유류’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 보았다.
- ② ‘진화’와 관련된 내용이 어려워 과학 시간에 ‘진화’에 대해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았다.
- ③ 나무늘보와 코알라가 분포하는 곳의 환경적 특징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 ④ 나무늘보와 코알라와 관련된 글쓴이의 생각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았다.
- ⑤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존하게끔 진화한 것이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앞부분을 다시 읽어 보았다.

21. 글쓴이가 윗글을 쓴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물들의 진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 ② 느린 동물들의 신체적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 ③ 코알라와 나무늘보의 생존 전략을 알려주기 위해서
- ④ 경제학 관련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 ⑤ 불리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가)의 ‘콜럼버스가 유럽으로 전한 고추는, 16세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을 거쳐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퍼져 나갔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가)의 ‘자신이 밟은 땅을 인도라고 착각한 콜럼버스는 후추를 찾지 못했지만 대신 감자와 고추를 발견하였습니다.’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② (다)의 ‘재배가 어렵지 않은 덕분에 그 뒤 고추는 남에서 북으로 점차 확산되었습니다.’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③ (마)의 ‘당시에는 고추를 일본인이 조선인을 독살할 목적으로 가져온 독초로 취급했다고 합니다.’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④ (마)의 ‘고추를 고초라고 불렀는데 이는 후추같이 매운맛을 내는 식물이라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2. 정답 ①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읽기 목적에 맞게 필요한 내용만 글에서 선별하여 정리해야 한다.

② 글쓴이의 생각이 타당하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것은 읽기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③ 고추를 사용한 음식을 조사하는 것은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이 아니다,

④ 우리나라 고추와 서양의 고추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것은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이 아니다.

⑤ ‘향신료’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을 참고하는 것은 읽기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3. 정답 ③

글의 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떠올리는 것이 적절하다.

① 제목에서 신대륙 탐험의 계기를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제목에서 고추를 재배하기에 적절한 기후를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제목은 ‘고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신대륙 발견과 함께 발견된 작물을 궁금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제목을 보고 신대륙에서 고추를 발견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정답 ②

(나)에서 나무늘보가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나무늘보는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느리게 움직인다.

③ 나무늘보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며,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느리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④ 나무늘보는 나무의 잎, 새싹, 열매 등을 먹고 산다.

⑤ 나무늘보가 야행성인 것은 맞지만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5. 정답 ②, ③

②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생존법을 제시하여 생물이 생존하려면 블루 오션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으므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③ 나무늘보와 코알라가 블루 오션 전략을 창시했다기보다는 우연히 천적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글쓴이가 주관적인 해석을 한 것 같아서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①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신체 조건이 생존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④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먹이나 서식 환경이 생존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

⑤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먹이나 서식 환경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블루 오션 전략과 관련지어 설명했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생각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6. [정답] ⑤

읽기 과정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해결하며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사고력과 능동적 읽기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① 읽기는 글을 읽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 ② 글을 읽을 때에는 글과 관련된 독자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③ 글을 읽을 때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 ④ 글을 읽을 때는 글의 의미 파악이 힘든 부분을 해결해 나가며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7. [정답] ①

(가)에서 콜럼버스가 신대륙과 함께 고추를 발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라)의 “국물이 많은 절인 채소”라는 의미의 ‘침채’가 김치의 어원인데~’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③ (다)의 ‘임진왜란 즈음에 이미 고추 재배가 경상도 일대로 퍼져 나간 것입니다.’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④ (나)의 ‘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콤한’ 고추, 파프리카는~, ‘헝가리식 쇠고기 스투 ‘굴라시’는 파프리카를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음식입니다.’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⑤ (다)의 ‘1543년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 규슈까지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추는 일본을 거쳐 지금의 부산인 동래 왜관을 통해 들어와~’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④

(나)의 “달콤한’ 고추, 파프리카는 부드러운 고추의 변종으로 미국의 열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에서 파프리카의 뿌리가 미국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가)의 ‘그렇게 고추는 한 세기 만에 전 세계로 전해졌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라)의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는 고추 맛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음식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바)의 ‘신경통, 동상, 이질, 담 등의 민간요법에

쓰였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동남아에서도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음식에 곁들이는 양념이 발달해 인도네시아의 삼발, 태국의 남프릭 등 매운 소스가 개발되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정답] ②

글을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갑은 책의 제목을 보고 책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 ③ 모르는 단어에 대해 공부를 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 ④ 다른 자료를 참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⑤ 갑과 을의 생각은 글을 읽기 전에 한 것이다.

10. [정답] ③

갑과 을은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다.

- ① 작가 정보는 <보기>와 관련이 없다.
- ② 글의 주제는 <보기>와 관련이 없다.
- ④ 설명 방법은 <보기>와 관련이 없다.
- ⑤ 읽기 목적은 <보기>와 관련이 없다.

11. [정답] ②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앞뒤 맥락을 살펴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 ① 갑의 생각은 읽기 중 단계에서 부딪히는 문제이다.
- ③ 을의 생각은 읽기 후 단계에 해당한다.
- ④ 을은 읽기 후에 목적에 맞게 읽기 과정을 조정하고 있다.
- ⑤ 갑과 을은 읽기 중, 읽기 후 사고 과정을 통해 글을 능동적으로 읽고 있다.

12. [정답] ④

글의 중심 생각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 글의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해야 한다.

- ① 글의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글의 제재를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글의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글의 갈래를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글의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글의 성격을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글의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글의 특징을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정답] ④

‘그 전까지는 마늘이나 산초, 생강, 파 등을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로 사용하고~’에서 고추 이전에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이 중 순한 맛의 파프리카 가루는 헝가리를 대표하는 향신료가 되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1614년~, 당시에는 고추를 일본인이 조선인을 독살할 목적으로 가져온 독초로 취급했다고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자신이 밟은 땅을 인도라고 착각한 콜럼버스는 후추를 찾지 못했지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그래서 멀리해 오다 향신료 가격이 오르면서 점차 고추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정답] ②

학생 1은 다큐멘터리에서 본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 ①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예측하는 것이다.
- ③ 책의 내용이 읽기의 목적에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글의 제목을 보고 내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제기하는 것이다.
- ⑤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15. [정답] ③

<보기>는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찾은 자료이다.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은 ③이다.

- ① <보기>의 자료에 한국인들이 매운맛을 사랑하는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보기>의 자료에 한국 음식 중 고추를 활용한 음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보기>의 자료에 고추의 매운맛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보기>의 자료에 김치가 고추 맛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음식이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16. [정답] ③

김치의 어원은 고추의 역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① ‘1. 고추의 발견과 전파’라는 항목에 맞게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고추를 발견한 내용을 넣는 것은 적절하다.
- ② ‘2. 고추의 한국 입성’이라는 항목에 맞게 고추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내용을 넣는 것은 적절하다.
- ④ ‘2. 고추의 한국 입성’이라는 항목에 맞게 한국 음식에 고추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역사가 길지 않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적절하다.
- ⑤ ‘3. 고추의 대중화’라는 항목에 맞게 세계인들이 김치를 찾는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적절하다.

17. [정답] ⑤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느릿느릿 움직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 나무늘보와 코알라는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화했다.
- ②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서식 환경은 블루 오션에 해당한다.
- ③ 나무늘보가 코알라에 비해 좋은 신체 조건을 가졌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유칼립투스잎은 영양이 별로 없고 소화도 잘 안 돼서 먹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18. [정답] ④

‘나무 위에서 맛없고 질긴 풀을 주식으로 삼았기에 다른 종들과 먹이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었다. 나무늘보와 코알라야말로 진짜 블루 오션 전략의 창시자들이 아닐까 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운다는 의미로 레드 오션에 해당한다.
- ② 치열하게 먹이 경쟁을 하는 것은 레드 오션에 해당한다.
- ③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은 레드 오션에 해당한다.
- ⑤ 신체 조건이 좋지 않아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블루 오션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다.